

# 조합장이 한번 인사하면 말뚝?

직원 인사권이 조합장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지역농협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직선제 이후 지역농협 인사권을 조합장이 행사하면서 지역농협 간 인사 교류가 단절될 뿐 아니라 특정인의 핵심 보직 장기 근무로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6개 지역조합이 있는 장흥군의 경우 정규 직원의 조합간 순환인사가 지난 2005년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정한 2급 전무직을 7년 가까이 근무하는 등 심각한 인사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 지역농협 인사권 집중 조합간 교류도 막혀 적체 심각·조직 발전 저해...개선 서둘러야

이같은 현상은 전남 도내 시·군별 지역농협이 비슷한 실정으로 지난 90년대까지 농협중앙회가 일선 시·군 지부장들로 하여금 전무이하 일반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권을 위임 받아 행사해 오다 직선 조합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인사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조합간 급여체계(상여금)가

각각 다른데다 조합장들의 자기 사람 심기 등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사 규약(전무급 2년, 일반직원 3년이상 근무시 조합간 교류)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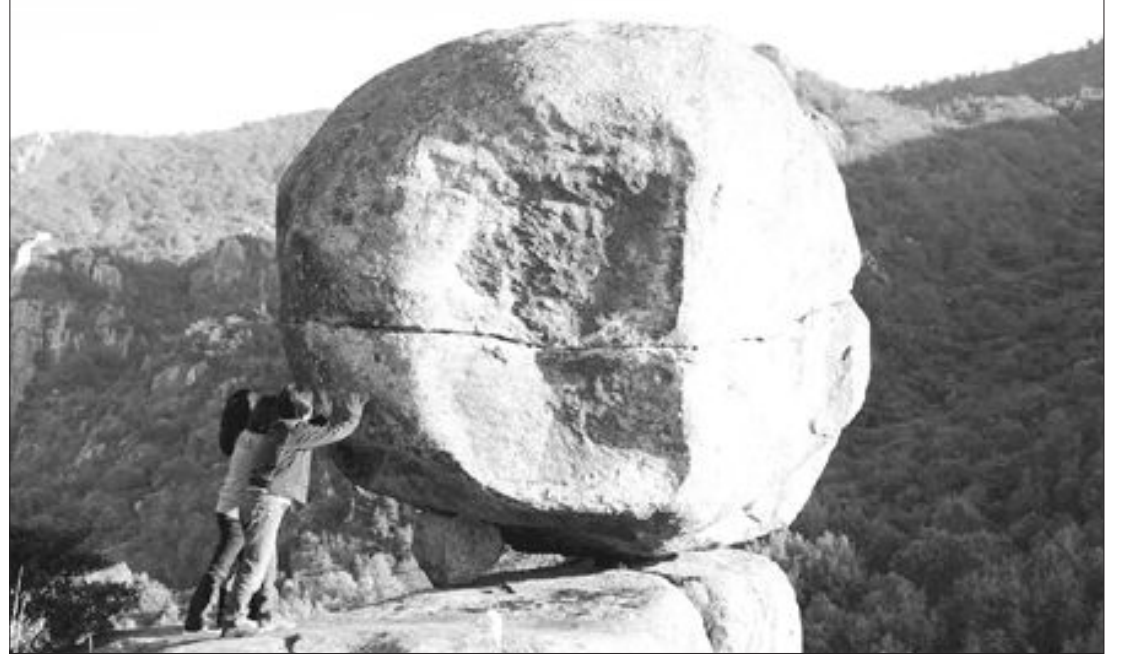
더욱이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조직체인 '품목조합'의 경우 인사 교류가 제한돼 있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도 보직이동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나주배조합의 경우 최근 직원 A씨가 동료 직원인 B씨를 폭행, 팔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혔는데도 조합측은 신상처벌 수위만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뿐 보직 변경 등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조합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행·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일선 시·군 지부가 인사 교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강진 주작산 종턱의 동구리바위가 최근 등산로 개설로 접근이 쉬워져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강진 주작산에도 흔들바위 있다

“강진 주작산 흔들바위를 아십니까?”

주작산(해발 428m) 휴양림관리사무소(소장 최치현)가 지난달 3km에 달하는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그동안 외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동구리 바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30여분을 걸다보면 절벽위에 서 있는 폭 5m의 초대형 동구리 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동구리 바위는 돌레가 톱으로 잘라놓은 듯 금이 가 있고 60cm 정도의

### 등산로 정비 모습 드러내 새로운 관광명소 발돋움

작은 돌이 밑에서 바위를 지탱하고 있다.

동구리 바위는 실악산 흔들바위처럼 사람이 밟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동구리 바위 아래로는 주작산 절경과 신전면의 넓은 농경지가 한눈에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새로운 강진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동구리 바위는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로 유명하다. 실제로 가뭄으로 고생했던 1942년과 1967년 기우제를 지내 비가 왔고 지난 1990년에도 신전면 노인회에서 제사를 지내 비가 왔었다고 전해진다.

휴양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등산로에서 비껴나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바위의 존재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주변 등산로를 잘 정비해 등산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제철 과일' 나주배 2차 판촉 매진

### 6만 상자 팔려

나주배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전국 이마트 116개 지점에서 동시에 시작했던 나주배 2차 판촉행사에서 판매 예상물량 6만상자가 주말과 휴일에 걸쳐 매진됐다.

당초 12일까지 었던 판촉행사 이전에 판매가 완료된 것은 엄격한 선별을 거친 고품질의 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 외에도 명절때만 소비하는 '제수용 과일'이라는 선입견을 탈피해 '제철 과일'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뿌리 내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탄 음식을 먹은 후 배를 먹으면 발암성 물질과 대기오염물질 등이 식 후 6시간 이내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연구발표가 잇따르면서 웰빙 과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와함께 만성적인 기관지 천식질



신정훈 나주시장과 강진구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홍보단이 지난 6일 이후 광주 이마트 광산점에서 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은 물론 환질기 기침과 감기에 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즙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환 나주시 농산물유통과장은 “신정훈 시장을 필두로 전공무원들

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배사주기 운동에 나선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배구매는 건강증진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배 농가를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곡성 농업인 한마당

곡성지역 농업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08 곡성군 농업인 한마당대회'가 12일 도립사관단지에서 개최됐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읍면별 특화작목을 전시한 명품농산물관, 우수농산물관, 생활개선 과제작품관, 농촌체험마을관, 친환경농업관이 개설됐다.

또 회원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화합한마당 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져 600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형래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곡성 농산물을 명품화하는데 모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내년에는 자연농법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며 농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장성 학운위장 간담회

장성교육청(교육장 배병채)은 11일 장성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우수 지역교육청으로 선정됐던 지난해 성과와 교육예산 집행내역 등을 설명하고 2008 장성교육 및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과학전람회 등 올해 성과를 점검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 선출에 나서 회장에 월평초등학교 정창욱위원장, 부회장에 성산초등학교 김종원위원장, 활동중 박경열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 완도 해동리 경로복지회관 준공

완도군내에 도서형 경로복지회관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완도군은 11일 약산면 해동리에서 김종식 군수를 비롯해 차우우 군의회 의장, 박업수·김부웅·신익준 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복지회관 준공식을 가졌다.(사진)

군은 총공사비 3억5천500만원을 들여 건평 310.09㎡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했다.

복지회관내에는 체육생활시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식당, 찜질방, 오락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 웃음 체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민선 4기 역점 공약사업인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는 현재 노화도 석중, 생일도 덕우, 금일도 동백, 청산도 음리 등 7개 읍·면에 세워졌다.

김종식 군수는 “현재 완도군은 노령인구가 24.2%를 차지하고 복지시설이 육지나 도시권보다 열악하다”며 “오는 2011년까지 30개의 경로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담양 유문재 터널 개통

####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담양군 남면 경성리와 가암리를 연결하는 유문재 터널이 착공 5년여만인 14일 개통된다.

유문재 터널은 왕복 2차선에 길이 590m이며 1.65km의 접속도로 건설 등에 160억원이 투입됐다.

유문재를 지나는 기존 지방도 887호선은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해 겨울철 적은 양의 눈에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04년 터널공사를 시작해 당초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1년 앞당겨 조기 개통됐다.

터널 개통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화순선천과 담양 가사문화권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 광산구 '분권 교부세' 13억원 확보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속 페달'

광산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분권 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해 내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분권 교부세 확보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중앙

청사에서 열린 '08년 자전거 시범도시 사업평가 보고회'에서 1등급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분권 교부세'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노인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 등

에 쓰인다.

구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물론 보관대 확충, 자전거 횡단보도터 낮추기, 공용 자전거 보급, 자전거 교실 및 무료 수리센터 운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광산구는 광주 최초로 자전거 이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

#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설립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글로벌 특성화 대학」 광양 캠퍼스 설립은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특성화 대학이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학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글로벌특성화대학광양캠퍼스추진협의회

(YMCA, YWCA, 광양연대, 광양AC, 동광영AC, 민간관영단체협의회, 지수속쓰시사협의회 등)